

빅뱅, 美 키즈 초이스 어워드 ‘글로벌 뮤직스타’ 후보에

빅뱅이 미국 어린이 엔터테인먼트 전문 케이블채널 니켈로디언의 ‘키즈 초이스 어워드 2017’에서 글로벌 뮤직스타 부문에 수상 후보로 올랐다.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해당 부문에 이름을 올린 빅뱅은 미국 가수 브루노 마스, 콜롬비아 출신 가수 사키라, 호주 출신 밴드 ‘파인브 세컨즈 오브 서머’ 등 경쟁한 후보들과 경합을 벌이게 됐다.



9일 개봉하는 영화 ‘조작된 도시’는 박광현 감독(왼쪽 사진 왼쪽)이 12년 만에 내놓는 신작이다. ‘해빙’의 이수연 감독(가운데), ‘대립군’의 정윤철 감독 역시 각각 14년과 9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사진제공 | TPS컴퍼니·위더스필름·리얼라이즈픽처스

감독들의 귀환…충무로가 뜨겁다

박광현, 12년만의 신작 ‘조작된 도시’ 내놔
이수연, 심리 스릴러 ‘해빙’ 3월 개봉 앞둔
정윤철, 임진왜란 배경 사극 ‘대립군’ 예고

오랜 휴식기를 거친 감독들이 돌아온다. 공백의 시간에 완성한 이야기를 관객에 내놓는 감독들이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단연 주목받는 인물은 박광현 감독이다. 9일 개봉하는 영화 ‘조작된 도시’(제작 TPS컴퍼니)를 통해 12년 만에 돌아오면서 영화계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 박 감독은 2005년 ‘웰컴 투 동막골’로 8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연출자다. 주가를 높였지만 차기작을 내놓기까지 예

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

그는 12년의 공백을 “오랜 백수생활”이라고 표현했다. 그 사이 준비해온 작품이 있었지만 의도치 않게 제작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 만큼 신작 ‘조작된 도시’에 거는 각오와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박 감독은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범죄액션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가졌다”고 밝혔다. ‘웰컴 투 동막골’에서 전쟁 속 사람들의 고통을 파산한 시선으로 그린 감독은 이번 ‘조작된 도시’로는 게임을 통한 가상의 세계와 현실을 이으며 신선한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10여년 만에 관객의 평가를 기다리는 감독은 더 있다.

3월 스릴러 ‘해빙’(제작 위더스필름)을 내놓는 이수연 감독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조진웅 주

연의 영화는 개봉을 앞두고 공개한 온라인 예고편이 단숨에 2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화제다. 내용을 쉽게 집작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분위기 아래 조진웅을 비롯해 김대명, 신구 등 배우들이 풍기는 이질적인 이미지가 일찌감치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수연 감독은 2003년 전지현과 박신양이 출연한 ‘4인용 식탁’으로 주목받았다. 실험적 성격의 영화 작업에 집중해온 감독이 14년 만에 내놓는 상업영화가 ‘해빙’이다. 얼었던 한강이 녹으면서 떠오른 시체에 얹힌 비밀을 마주한 남자가 겪는 심리 스릴러다.

조승우의 출세작이기도 한 ‘말아톤’으로 익숙한 정윤철 감독도 9년 만에 신작 준비에 한창이다. 이정재 주연의 사극 ‘대립군’(제작 리얼라이즈픽처스)이다. 2008년 ‘슈퍼맨이었던 사

나이’를 끝으로 신작에 몰두해왔지만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한 감독은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대항 사극으로 돌아온다. 1월 촬영을 마무리하고 편집 작업에 한창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반전의 흥행 영화로 기록된 유해진 주연의 ‘럭키’(제작 용필름)의 이계백 감독 역시 11년 만에 성과를 얻은 주인공. 2005년 ‘아수와 미녀’ 이후 연출작을 내놓지 못한 감독은 ‘럭키’의 흥행으로 충무로의 시선을 받고 있다.

물론 긴 공백을 딛고 신작을 내놓는 감독들 앞에는 혹독한 과정이 남아 있다. 더욱 치열해진 흥행 경쟁도 피할 수 없다. 박광현 감독은 “(공백은)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누구나 보기 편한 영화를 만들길 원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예능 셋별→드라마 주연…남궁민-하석진 님은꼴 행보

남궁민 ‘우결’·하석진 ‘문제적남자’로 주목
기계공학과 출신…최근 회사원 연기 각광

두 ‘늦깎이’ 스타 남궁민과 하석진의 님은 행보가 눈길을 모은다.

2000년대 초반 데뷔해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지금의 전성기를 맞는 계기를 만든 남궁민과 하석진은 각각 중앙대와 한양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통점을 지녔다. 최근엔 잇따라 회사원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출연할 예정이다.

남궁민은 3연타석 홈런을 위한 8루 능선을 넘었다. 2014년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해 친근한 이미지로 시청자에 다가선 뒤 2015년 SBS ‘리멤버-아들의 전쟁’에서 극악무도한 재벌 3세를 연기하며 완벽하게 캐릭터를 소화한 연기력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지난해 2016년 SBS ‘미녀 공심이’로 데뷔 18년 만에 첫 주인공을 맡았다. 사랑에 서툰면서도 진실한 캐릭터를 맛깔스럽게 표현해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도 최적의 모습을 과시했다.



남궁민

뒤이어 현재 주연 중인 KBS 2TV 수목드라마 ‘김과장’의 시청률을 끌어올리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13.8%, 닐슨코리아)에 올려놓았다. 특히 기대작으로 꼽힌 SBS ‘사임당, 빛의 일기’를 4회 만에 앞질렀다. 능성스러운 캐릭터를 제대로 표현하는 열연 덕분이다.

하석진은 이제 시작이다. 하석진은 2015년 케이블채널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와 MBC ‘나 혼자 산다’ 등으로 대중에게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그 이전 잘 알려지지 않았던 ‘4차원’의 매력으로 시청자와 한층 가까워졌



하석진

다. 이를 계기로 2015년 처음으로 광고에도 나섰다.

이후 지난해 케이블채널 드라마팩스 ‘1%의 어떤 것’과 함께 tvN ‘혼술남녀’는 그를 온전한 주연으로서 바라보게 했다. 이에 힘입어 3월 방송하는 MBC 수목드라마 ‘자제발광 오피스’로 지상파 채널 첫 주인공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하석진은 극중 ‘독한 세지 헛바닥’이란 별명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캐릭터를 연기한다. 한 가구회사의 간부인 그가 또 다른 변신에 나서는 셈이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위안부 소재 영화 ‘눈길’ ‘판도라’ 5억 펀딩 경신?

5일까지 2억 넘어…3억원 증액키로

일제강점기 위안부 소재 영화 ‘눈길’이 개봉 전부터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3월1일 개봉하는 ‘눈길’(감독 이나정·제작 KBS)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관객 투자자 모집에서 30분 만에 목표액을 달성했다. 역대 최단 기록이다. 제작진은 물론 한국영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다.

‘눈길’은 흥행 성적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형 펀딩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3일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목표액은 4000만원. 펀딩 시작과 동시에 투자자가 몰려 30분 만에 목표치를 채웠다. 문의가 잇따르자 제작진은 목표액을 6일부터 3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미 5일 오후 3시 현재 누적 투자액은 2억1000만원까지 올랐다. 목표치 대비 500%가 넘는 참여율이다.

‘눈길’을 향한 관심은 앞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불륜부스터의 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돋보인다. 제작비 150억원의 대작 ‘판도라’ 역시 지난해 11월 투자형 펀딩을 진행해 12일 만에 1차 목표액 5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펀딩 최고액이다. 이보다 제작 규모가 현저히 작은 ‘눈길’은 3일 만에 2억원을 모금했다.

제작진은 영화 흥행 수익의 일정액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는 단체에 기탁하기로 했고, 취지에 공감한 관객이 투자에 나선 것이 주된 동력으로 보인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 관련 12·28 합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고, ‘평화의 소녀상’을 바라보는 일본의 극우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김항기와 김새론이 주연한 ‘눈길’은 1944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소녀가 일본군에 끌려가 겪는 극한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다른 운명을 가진 두 소녀가 겪는 아픈 역사를 관객에 전한다.

이혜리 기자

연예뉴스 스테이션

연예인 주식부자, 자산 평가액 절반가량 줄어



이수만

이수만, 양현석, 배용준 등 연예인 주식부자들의 주식 자산 평가액이 절반가량 줄었다. 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보유주식 가치는 1년 전의 1862억원에서 824억원(44.3%) 감소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도 1년 사이 주식 평가액이 770억원(44.6%)으로 줄어들었다. 연예기획사 키이스트의 대주주인 배용준도 1년 전 600억원이 넘는 주식 평가액이 현재 441억원으로 줄었고, 한성호 FNC엔터테인먼트 대표도 562억원에서 289억원으로 1년간 48.6% 급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이 의심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실적 불확실성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박보검, 일본 팬미팅 성황리에 마쳐



박보검

연기자 박보검이 첫 일본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016-2017 아시아 투어 팬미팅’을 펼치고 있는 박보검이 4일 일본 도쿄 국제포럼에서 5000여 팬들과 함께했다. 이날 무대에서 박보검은 피아노 반주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하트가 가득한 그림으로 팬들에게 우정을 전했다. 특히 하창시절 배운 일본어 실력을 과시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박보검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연결돼 있다”면서 “오래도록 보고 싶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박보검과 함께 ‘구르미 그린 달빛’으로 시선을 집중시킨 김유정도 같은 날 대만 팬미팅을 마쳤다. 작년 12월 스트레싱 쇼크 이후 처음으로 무대에 나선 김유정은 타이베이 ATT쇼박스에서 600여 현지 팬들과 만났다.

티아라 ‘티아모’, 뮤즈TV 베스트 뮤비 선정



티아라

티아라의 ‘티아모’ 뮤직비디오가 미국 음악전문 케이블채널 뮤즈TV의 ‘2016년 베스트 케이팝 뮤직비디오’로 선정됐다. 뮤즈TV는 최근 ‘2016 베스트 케이팝 비디오 40선’이란 코너를 통해 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인기투표를 진행했다. ‘티아모’는 약 58만명의 팬들이 참여한 투표에서 여섯 번의 라운드를 거쳐 최종 1위를 차지했다. 작년 11월 선보인 ‘티아모’ 뮤직비디오는 6월 만에 중국에서 1억3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티아라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승연·김창렬 등 연탄 1만장 봉사활동



김창렬

배우 이승연과 DJ DOC 김창렬,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남현희, 연예인아구단 조마조마 소속 성대현 강성진 등이 4일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일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50여 가구에 모두 연탄 1만장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사)트러스트앤스마일 홍보대사인 이승연은 해마다 연탄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에 쌀 500kg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1월 29일~2월 4일

1위 영화
정보보기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공조	5,869,606	01/18
2	더 킹	4,836,677	01/18
3	모아나	2,068,213	01/12
4	레지던트 이블:파멸의 날	669,354	01/25
5	컨택트	246,794	02/02
6	나의 이름은	3,529,134	01/04
7	라라랜드	3,198,335	12/07
8	타닝메카드W	413,885	01/18
9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109,341	01/25
10	라이언	46,569	02/01

문근영, 급성구획증후군으로 두차례 수술

연기자 문근영이 급성구획증후군으로 수술 사이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에 대한 팬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주연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지방공연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 향후 행보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근영은 1일 급심한 오른쪽 통증을 호소해 2일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급성구획증후군 진단에 따라 당일 응급수술을 진행했고, 4일 오전 2차 수술을 받았다. 경과에 따라 3차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급성구획증후군은 발견 즉시 근막절개 수술



문근영

을 받아야 하는 응급질환이다. 근육 출혈이나 감염으로 인해 협압이 높아져 동맥을 압박, 극심한 통증은 물론 심할 경우 근육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근육 파열이나 심한 타박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문근영은 병원을 찾기 전까지 관련 질병은 물론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나무엑츠는 관계자는 5일 “두 차례 수

술을 마쳤고, 무엇보다 치료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해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4일과 5일 대전 공연을 취소했다. 뒤이은 18일~19일 대구, 25일~26일 안동 공연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줄리엣 역의 문근영은 상대역 박정민과 함께 원캐스트로 이번 연극을 이끌어온 만큼 그의 부재를 대체할 배우가 없는 상황이다.

문근영은 당초 이날 말까지 ‘로미오와 줄리엣’을 소화하고 이후 영화 ‘유리정원’으로 관객을 찾을 계획이었다. ‘유리정원’의 개봉은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상황.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혜리 기자